

토론문

이건범 교수님(한신대학교)

오늘 세편의 논문들의 주제가 어렵고 다양하기도 하여 토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기의 한국금융에 대한 해법제시에 있어서 각 논문마다 차별적인 강조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은행업-금융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한국금융에 대한 해법이 본 토론회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은행업에 대하여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는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분기 성장률로 보면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우선 이것이 금융 위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 전체 상황에 따른 금융업의 악화가 금융업의 수익성 위기라고 판단하여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연결시켜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전반을 연관시켜 금융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프라임 위기 때 미국과 유럽에 많은 금융기관들과 금융업이 피해를 받았는데 유럽의 경우, 몇 나라들은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있는데 은행업은 좋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 나라들에서 은행업이 급속 악화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한국의 은행업이 나빠지면 반드시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를 시켜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행업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은행업이 IMF 이후 특히 경제개발 년도 이후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았던 적은 없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동안 위기 상황 이후에 합병, 구조조정,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은행업은 좋아졌습니다. 은행업이 규모가 커지고 경쟁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나빠지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상황은 바뀌었는데 은행업이 과거 개발년도 방식의 영업을 유지하고 스스로 개혁-혁신을 못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대출 관행에 있어서 대기업은 국가에서 밀어주고 중소기업은 보증제도로 밀어주는 등 은행은 조달 들어오는 예금을 대출해주는 것에 안주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바뀌어 기업은 대출수요가 적어지고 있고, 개인의 대출은 담보 대출위주로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은행은 다른 기관에 비해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만 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은행의 수익성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모든 은행들은 대부분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실질적인 겸업화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또한 겸업화를 통해 수익성 향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기존의 업권별 감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러한 금융감독이 실질적인 겸업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 및 보험분야를 볼 때 아시다시피 대그룹 계열회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산 분리의 문제도 있지만 왜 재벌기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이게 별로 수익성 향상이라든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은행은 대부분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대형화하고 겸업화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형화, 겸업화로 인해서 대리인의 파워는 커지는 효과 즉 대리인 비용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은행이 이를 추구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대리인 비용과 관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시점에서는 은행이 크고 대형화를 이루고 있는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기에 규제 측면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줄이더라고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 관계형 금융을 제시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출은행은 담보위주-보증위주 이기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각 기관 기득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은행이 굳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외국 금융기관에게 로케트 개발하는 회사가 자사의 새로운 실험에 투자가 좋은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존 관행 때문에 안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면서 이제 실질적인 대출심사 노하우를 축적하는 문제를 은행권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은행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업’만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 불리는 금융회사들입니다. 예금과 대출업만 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비은행금융회사인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 이들을 Savings Bank(저축은행) Corporative Bank(조합은행)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국 및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비 은행권들이 은행에 상응하는 큰 규모로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충분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칭으로 볼 때 은행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신업무-수신업무에 큰 제약을 갖고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계형 금융이 비 은행이 커질 수 있는 계기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비은행권은 은행업이라 불리워도 되는데 규제에 의해 은행이라고 불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에 감독상의 큰문제만 없다면 예금 및 대출 기능은 키워주면서 은행들의 실질적인 경쟁 상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초

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금 제도를 열어주는 것이 대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입니다. 유럽은 상호금융이라는 것은 30-40%를 차지합니다. 대출업무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은행업권을 열어줘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의 두 가지 큰 문제는 개발시대의 금융시스템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금융권이 아주 조금씩만 변화하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전환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제도에 익숙한 현재의 강자들이 자기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시대적 제도를 온전시키고 있기에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규제와 감독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